

현대만화

박구원



사설

이번 우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바로 '생명의 가치를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귀금속은 대피를 시키고, 간부들도 도망쳐 나오면서 손님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은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그동안 발생한 대형 화재, 천주 우암동 상가 붕괴, 한강 성수대교의 절단, 위도 페리호 침몰, 부산역 기차전복 사건 등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간의 존엄함을 망각해 버린 데에 있다. 또한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망각하고 눈가리고 아웅한 채 돈이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내부적 갈등 속에서 축적된 역량을 사회에 회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와 경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전한 종교운동은 이성적 합리성과 감성적 초월성이 상호 융합되어 그 균형을 상실치 않을 때 발전한다는 점을 간파해선 안된다. 따라서 종교적 영성을 개발하여 개인적 안심입명을 획득하는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개발하는 사회운동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배금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국민정서를 바로잡고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할 것이며, 개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홍보하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공업생태인 사상을 확립시켜

의식전환 없으면 구두선

벌자는 배금주의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착잡함과 불안,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불교계는 냉엄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해 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산업화의 부산물인 물질적 풍요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사회적 부조리를 방조한 책임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재삼 확인해야 한다.

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불교의 몫이며,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제물 보살께 공양했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서는 학교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종교단체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사회교육기간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사회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하거나 신앙심이 돈독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그렇다. 특히 불교 신도가 2천만명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이 2천만명이어서 이 사회를 구조적 부패에서 지켜줄 수 있다면 그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계가 사회의식을 개혁하는데 다른 어떤 종교보다 앞장서자고 권유한다.

열린마당

삼풍 대참사

월 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동체대비 정신으로 개혁 절실

삼풍백화점 붕괴 대참사는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없는 생명존중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경허한 자기 반성과 함께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갖고 전국민이 생명존중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자비와 화평사상으로 고통을 분담,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순식간의 붕괴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현 성 스님 (청소년교회연합회장)

탐심·이기심·무지가 낳은 결과

삼풍백화점 대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또다시 가슴 아프게 한 대형사고다. 한 기업인의 자제할 줄 모르는 탐심과 이기심, 무지에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우 가스폭발사고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비윤리적인 기업인의 방식에 죄없는 무수한 시민만을 희생시킨 꼴이 났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행한다면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 선 스님 (백양사 주지)

정부 불감증 규탄받아 마땅

지상5층 지하4층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는 정부의 고위층에서 말단공무원, 국민들의 의식까지 함께 무너졌던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영삼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구로열차사고,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등 2년 반 동안의 8건의 대형사 기폭을 세워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인재인데 이런 인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불감증 때문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어찌 우리는 대형참사를 재발방지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어버리는지 안타깝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

임자 추궁으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

고 흥 문 (전 국회의장)

'나라 다시 세우기' 각오 필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서울 한복판의 대형 백화점이 모래성 무너지듯 붕괴했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듯 허무하고 아픈이 온 국민을 휘감는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국민은 재발방지를 다짐해 왔다. 그렇지만 사고는 일정기간을 두고 또 일어났고 모두가 지난 일을 잊어버린 듯 하다. 이러한 사고 불감증이 사고공화국을 유발하고 있다.

대형사고는 총체적인 문제점에서 발생한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국민은 우왕좌왕할 뿐이다. 도덕이 멀어지는 윤리부재가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는 우리는 지난 6.27 선거의 여당 패배로 극명하게 표출했다. 문민정부 출범과 개혁의 의지가 다시금 세워져야 하겠다. 나라가 건장하기 위해서는 법국민적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정부 위정자들의 '나라 다시 세우기' 각오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 양 자 (국회의원, 민주당)

도덕부재의 비극·생명존엄 명심

옛속담에 설마가 사람죽이며 개미구멍이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작은 안전소홀로 인해 대형참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삼풍백화점 대참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옛 조상들이 비중을 크게 두었던 조심성이 새삼스럽다.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가 작은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 세계화를 향한 험한 전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자성해 볼 일이다. 이번 사고를 누구 누구의 탓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부재에서 빚어진 엄청난 비극이란 사실을 거울삼아 도덕이 살아있는 품위있는 나라 만들기에 온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 중 환 (전국 교법사단 단장)

배금주의의 산물·삼독심 버려야

이번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쪽의 미온적인 안전관리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무시한 채 단지 소아적인 재물욕만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번 참사를 초래한 것은 한마디로 배금주의의 종조가 빚어낸 산물이다.

교육현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다. 돈의 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일부 배금주의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사실때문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는 물론 자라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재물욕 채우기에 열안이 되어 있는 일부 배금주의자들은 하루빨리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윤 근 (불교TV 부산지사 후원회장)

적당주의의 결과·부조리 뿌리뽑아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뒤리고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평소의 주의부족과 적당주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도 이전 진부한 표현이 될 밖에 없다. '집을 한 채 짓는 것도 내몸을 가꾸듯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돈에 급급하다 보니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인명은 뒷전에 밀려나 버린 것이 아닌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사 후 불교계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인명구조 노력은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건축주와 감리자 모두가 양심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하며 그것이 곧 정도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김 향 란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잇단 대형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

대우 상인동 가스폭발참사가 었고제 같은데, 다시는 그런 영타리같은 일이 재발않기를 맹세하고 또 맹세한 것이 바로 었고제 같은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더니...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우리는 원인규명과 대책수립, 책임자 처벌과 보상문제 등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대나 그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부처님은 탐·진·치 3독을 버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들을 위해 힘써 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도 이기적인 탐욕심을 조급

만 자제하여 고객을 미리 대피시켰다면 이렇게 큰 참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연이어 계속되는 대형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공사와 연루된 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나아가 재난구조와 관련된 제도적·물적·인적체제를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김 봉 렬 (울산대 건축학 교수)

대형구조물 안전진단 필수

삼풍백화점 붕괴는 지난 88년 이후 시작된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졸속성을 보여주는 예견된 사고였다.

당시 울림픽을 치루고 난 우리나라에는 건축자재가 심각하게 부족하였다. 시멘트의 부족으로 품질이 형편없는 중국산 시멘트를 다량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이미 굳은 시멘트를 사용기도 했다. 또한 삼풍백화점 등 자본의 이기성을 드러낸 악덕 경영주들은 공사비 절감과 매장 확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를 유발시켰다.

이번 대참사는 건설공사의 구조적 부조리와 입찰과정의 문제점, 하도급 및 감리구조의 문제점, 시공상의 불합리한 관례 등이 쌓인 토대 위에 6공 정부의 무리한 주택건설사업이 낳은 예견된 인재였다. 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전국의 대형구조물의 안전진단이 시급하다.

김 광 석 (가수)

취약한 재난구조체계 확립을

어떻게 폭파도 아닌데 왜 쓰러질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아내가 3시30분경 삼풍백화점에 물건을 교환하려고 다녀와서 더욱 충격이 컸다.

사고소식을 듣고 더이상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울분이 치밀었다. 특히 구조하는 모습을 보니 체계적이지도 조직적이지도 못해 분통이 터졌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한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맹활약중인 구조대원들의 희생정신을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만 긴급상황시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일사분란하게 구조하는 초기 구조체계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건발생시 마다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드러나는 취약한 재난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교(교양)대학 등록공고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중단 재가불자 교육의 체계화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교(교양)대학의 등록을 다음 요강에 의거, 접수하오니 전국의 각 불교(교양)대학에서는 빠짐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상

전국 본·말사, 포교당, 신행단체에서 운영하는 3개월 과정 이상의 불교(교양)대학

2. 등록기간

불기 2539년 7월 18일(화) ~ 8월 31일(목)까지

3. 등록 구비서류

- 1) 불교(교양)대학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2) 소속 교구본사 주지 추천서(소정양식) → 예외) 직할교구 불교(교양)대학은 추천서 제외
- 3) 학칙·정관 또는 설립회의록
- 4) 교과 과정표(과목명, 교수명, 강의 시간표, 교재명) → 현재 사용하는 교재 첨부
- 5) 건물사진
- 6) 서약서(소정양식)
- 7) 사업계획서, 예산서
- 8) 연혁

4. 특 전

등록된 불교(교양)대학 졸업생에 한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학사운영이 우수한 불교(교양)대학은 종단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화 : 720-7060 ~ 4 / 팩스 : 720-7065

불기 2539년 7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김정락